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② 화엄경과 입법계품

화엄경은 처음부터 어느 한 시기에 단일 경전으로서 탄생한 것은 아니다. 60권(34품) 또는 80권(39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엄경은 그 중에서 십지품(十地品)과 입법계품(入法界品) 등 약 10여 개의 품(品)이 화엄경이 탄생하기 전에 독립경전으로서 이미 성립되어 세상에 유포되고 있던 것이었다. 화엄경은 이미 유포되고 있던 이러한 경전을 선택하여 배열하고, 여기에다 여러 품을 추가하여 4세기 중반 경에 서역의 코탄 부근에서 증보·편집한 경전이라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경전을 편집한 것은 대승 불교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대승사상자들이 깨달음의 세계와 거기에 이르는 길을 대승정신에 입각해서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화엄경에는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상적인 모습을 새로운 불타관으로써 제시하고 보살행을 통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부처와 부처의 세계를 구현해 가는 새로운 깨달음의 삶을 체계화하고 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부처님에 대해서 설한 것이라 전해져오고 있다. 사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

이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며, 또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등의 내용들이 밝혀져 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도하신 석가모니불께서 우주에 편만한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로 되어 본원력(本願力)에 근거

님과 부처님 세계를 아름답게 꽃피워 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을 향상시켜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 덕(德)을 갖추도록 하고 현실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화엄경의 교설은 구체적인 현실사회 속에서의 보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엄경의 줄거리는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 전까지를 제1부, 그리고 입법계품을 제2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부에서는 먼저 비로자나불의 출현과 그 세계인 연화장세계를 밝힌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과거의 보살의 수행을 설하

법을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로써 설하고 있다. 그리고 보살도가 문수보살의 지도에 의해 시작되고 보현보살의 경계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점도 같다. 또한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의 법문이 대체적으로 제1부에 나타나 있는 신(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의 보살 수행계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화엄경이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상되고 결집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거나 입법계품을 화엄경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 화엄경의 정종분(正宗分)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을 통해서 화엄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명의 선지식의 신분과 직업은 서로 다양하다. 그 선지식들은 보살·비구와 비구니·우바이·장자·거사·천신(天神)·여신(女神)·왕·바라문·동자와 동녀·외도(外道)·뱃사공·유녀(遊女) 등이다. 이러한 선지식들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며, 현실 사회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 개인의 열반과 깨달음의 성취에만 관심을 가지는 불교가 아니라, 사회화 인간으로서 행동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불교가 설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계품의 교설을 통해서 불교는 언제나 대중과 함께 숨쉬고 있어야 하며, 현실세계가 그대로 불법을 실천해야 하는 도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법신불의 본원력으로 법륜 굴러

현 세계 그대로가 불법실천 도량

를 두고 시방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법륜을 굴리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예경심과 찬탄을 바탕으로 하여 보살도가 전개된다. 이것은 대승불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깊은 종교적 감정이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화엄(華嚴)이라고 하는 말은 '꽃으로 장엄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보살행은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여 보살행을 실천하여 부처

는 형식이 신(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 등의 수행 계위로써 제시되어 있다. 제2부인 입법계품은 제1부에 설해진 보살도의 내용을 선재동자(善財童子)라고 하는 구도자가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설한 것이다.

입법계품 또한 제1부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이 있다. 즉 제2부에서도 제1부의 내용과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먼저 설하고 나서 보살도를 통해 그 세계에 들어가는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나는 어디에 있는가?

충분히 음미해 보자.

<1> 욕설, 풍, 악취, 시궁창, 주정꾼이 거리에 토해 놓은 음식찌꺼기, 바퀴벌레, 뱀, 건달, 강패, 술주정, 시비, 돈 없음, 불명예, 시기, 질투, 식욕, 성욕, 욕설, 분노, 사기, 파렴치, 비열, 도둑질, 강도, 살인, 강간, 성추행, 모욕감, 싸움, 원한, 두려움, 공포, 격정, 피로,

욕망 없음, 지금 이대로 만족함, 지금 이 순간 더 바랄 것이 없음, 편안한, 부처, 깨달음, 지혜, 해탈, 초탈.

대체로 <1>을 읽을 때는 인상이 찌푸러질 것이고 때로는 속조차 좋지 않을 것이다. 반면 <2>를 읽을 때에는 인상이 펴질 것이고 속도 편안할 것이고 때로는 미소조차 얼굴에 번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1>에 있는 것들과 <2>에 있는 것들은 분명 다른 것으로 실감이 된다.

<3> 이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스스로를 바로 돌이켜 보라. 눈을 어디에 두고 발은 어떻게 하고 코에는 어떤 냄새를 맡고 손에는 어떤 촉감을 느끼고 귀에는 무슨 소

지나가는 경험속에 내가 있어

몸살, 아픔, 중생, 어리석음, 지옥, 고통, 후회. <2> 칭찬, 심상한 딸기와 사과, 감미로운 장미의 향기, 맑은 계곡물, 시원한 바람, 상쾌한 물소리, 착하고 정직한 사람, 포근함, 안정감, 사랑, 행복, 상쾌함, 즐거움, 웃음, 유쾌함, 우정, 믿음, 격려, 안도, 건강, 풍족함, 파스함, 돈에 대한 무관심, 명예에 대한

리가 들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생각과 느낌과 감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이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각들은 모두 나(我)에게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나지 않거나 지나갈

때나 지나가고난 지금이나 나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아마 느낌이나 몸의 상태나 생각이나 욕망과 같은 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대로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험들이 달라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늘 그대로 머물러 있다.

경험들은 매 순간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곳에 늘 한결같이 내가 있다. 매 순간 나는 달라지는 다양한 경험을 나 자신에게서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나 자신은 늘 그렇게 경험 속에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과 떨어져서 경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경험과 따로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의 경험을 떠나서 따로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찾는 행위 자체가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나의 경험 속에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경험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험과는 달리 나는 늘 이 자리에 변함 없이 있다. 그러면 나를 알겠는가?

김태원 · 부산대 강사, 철학과

■ 김태원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회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6-456-8857(강보명) http://www.mindtree.net/



세포가 인간이 되기까지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합쳐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작은 세포다. 이 작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여 얼마 안 가서 태어나기 직전에는 세포 수가 약 100조가 되며, 체중은 약 3.2kg 이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발생 과정은 인체에서 뇌의 신비와 더불어 신비 중의 신비로 알려져 있다. 왜 신비 중의 신비라 하는가?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가 분할을 계속하여 세포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 각각의 세포에는 모두 똑같은 유전정보가 들어 있다. 그런데 어느 발생 시기가 되면 똑같은 유전정보를 갖는 세포로부터 심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소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손과 다리가

어 있기 때문이다"고 대답한다. 질문자가 또 물었다. "발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아의 형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인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이에 대하여 발생 유전학자들은 "그것 역시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단지 아직 그 프로그램이 구명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질문자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프로그램은 또 누가 조율하는가?" 이 최종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발생학자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고, 신앙을 가진 학자는 "하느님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며, 이

유전학자-역제 · 촉진 프로그램 있다

불교-유전자 최종 조율은 '정신적 요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문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유전 정보와 똑같은 세포로 구성된 초기 태아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장기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가?" 발생 유전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발생단계에서 각각의 세포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들 만이 발현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질문자는 또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각각의 세포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가?" 이에 대하여 발생 유전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유전자들 조율하는 즉,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발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

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유전자 프로그램이 그렇게 한다"라고 우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발생에 관한 설명이다. 결국 인간 발생 신비에 관해 유전자와 유전자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반 아는 것이 없는 셈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인간 발생의 시작은 제1 요소인 난자, 제2 요소인 정자 그리고 제3 요소인 '정신적 요소(명자의 中有)'가 서로 합쳐서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합(三合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최종 인자는 '정신적 요소(명자의 中有)'라 말한다. ■충남의대 산부인과학교수



그림 · 문병성